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될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9년 4월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며 함경북도 경성군 증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련포지구에 일떠세움으로써 함경남도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할 구상을 펼쳐시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련포지구 대규모 남새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설계사업을 지도해오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2022년도 주요국가건설정책과업들 중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을 내세우고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할것을 결정, 포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서 먼저 련포남새온실농장건설총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련포지구에 건설하게 되는 온실농장은 몇년전 함경북도 경성군 증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공사량에 있어서 더 방대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련포지구에 100정보온실과 농장살림집 지구가 일떠서게 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인민

들의 식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농장건설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민군 부대들에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온실농장 건설을 맡기기로 결심하시였다 하시면서 해당 부대 장병들은 당의 구상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로 담게 숭고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여 우리 당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건설하려는 온실농장설계안에 이미 건설한 증평남새온실농장의 우단점들을 모두

참고하고 반영하여 과학기술적측면에서나 경영상측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100정보면적에 해당한 850여개 온실들의 현대화수준을 철저히 높일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안가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온실농장변두리에 방풍림 조성을 선행시키고 농장살림집구획형성과 살림집형태의 다양성도 특색있게 구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농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분과들을 내오는 문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고 건설자재보장과 온실설비

제작을 선행하며 시공지도와 건설감독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방풍림조성과 원림녹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온실농장을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책임일군들로부터 공장이 최근에 이룩한 기술 및 생산공정 현대화정형과 현형생산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사상으로 철저히

공장책임일군들로부터 공장이 최근에 이룩한 기술 및 생산공정 현대화정형과 현형생산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무력의 현대화와 나라의 국방발전전략실현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우리 국방

공업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공장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군검수원들이 당의 혁명위업을 강위력한 첨단무장으로 옹위해나갈 일념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군수생산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국방공업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수정책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